2012. 08. 29

POSRI 보고서

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및 리스크 분석

박경서 수석연구위원, 지역경제연구센터 (kspak@posri.re.kr)

[목 차]

1. 印尼 경제, 견조한 성장 가운데 루피아화 하락
2. 중단기적으로 성장률 둔화되나 장기적 회복 전망
3. 印尼 사업에 내재된 리스크 요인

posco
포스코경영연구소

Executive Summary

○ **印尼 경제, 금년 들어 성장세 유지하는 가운데 루피아화 약세 지속**

- 유로존 경제위기 불구 금년도 상반기 경제성장률 6% 이상 지속되고 있으나 '11년 하반기 이후 무역수지 감소 및 일부 외국인 자금 유출 등으로 루피아화 가치 하락
- 印尼 정부는 루피아화 가치 하락이 금융 및 실물시장의 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은행 및 아시아 개발은행 등을 통해 외화 확보

○ **印尼 경제는 당분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 '15년 이후에는 예년 수준인 6%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에 대비할 필요**

- IMF는 금년에는 글로벌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6.1% 성장률을 보인 뒤 내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5년에는 7% 성장 전망
-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급격한 경제침체는 없을 것으로 보여 향후 2~3년은 5% 내외, 그 이후에는 6% 내외 성장 전망되지만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안정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

○ **그러나, 印尼 사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해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됨**

- (정치·행정 리스크) 차기 정권 향방이 불투명해 정권 교체시 경제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관료주의, 정경유착, 부정부패 등 비효율적 행정관행으로 각종 비공식 비용 발생
- (거시경제 불안) 외채구조는 비교적 양호하나 경제체질이 약해 국제금융시장 불안시 환율이 급등하고, 국제 곡물가와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
- (임금상승) 지방분권화(2001) 이후 포퓰리즘 정책이 앞다퉈 도입되면서 임금이 오르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인건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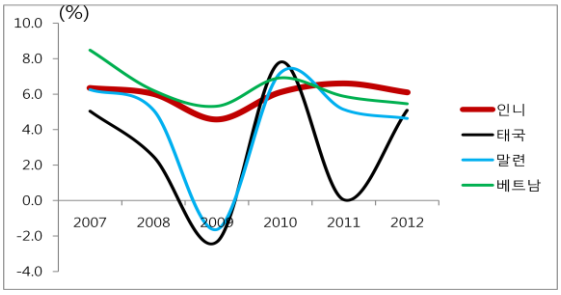
1. 印尼 경제, 견조한 성장 가운데 루피아화 하락

□ 유로존 경제위기 불구 금년도 상반기 경제성장률 6% 이상 지속

○ **印尼 경제는 2007 ~ 2011년에 소비, 투자, 교역 등 경제 전 부문에 걸쳐 호조세를 지속하여 연평균 5.9%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/4분기 6.3%, 2/4분기 6.4% 등 성장세 지속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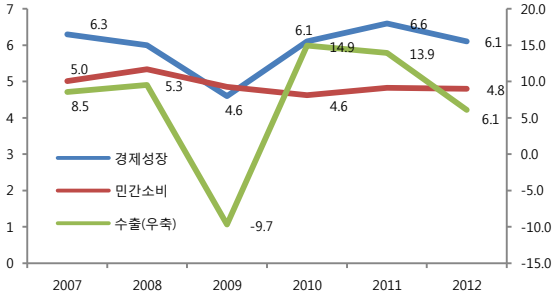
-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GDP의 55%에 이르는 내수중심의 경제구조하에서 매년 4~5%의 안정적인 소비증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[1]
- 반면 수출 비중은 25% 수준에 머물러 있고, 그 중 EU수출은 10%에 불과해 유로존 위기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채 안정적 성장 지속
- 무역수지는 주력 수출품인 광물자원과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매년 300억 불 내외의 흑자 기록

< 동남아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>



자료 : Global Insight '12. 7

<印尼 GDP, 소비, 수출 증가율>



주: 2012년은 추정치(Global Insight)

□ '11년 하반기 이후 무역수지 감소 및 일부 외국인 자금 유출 등으로 루피아 가치 하락

○ **여타 동남아 국가의 환율은 금년 들어 5월에 다소 상승하기도 했지만, 전반적으로 1월 대비 하향 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루피아 환율은 지난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**

- 루피아 환율은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으로 지난해 6월 8,500Rp/$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로 올해 8월 중순 현재 9,500 Rp/$ 수준으로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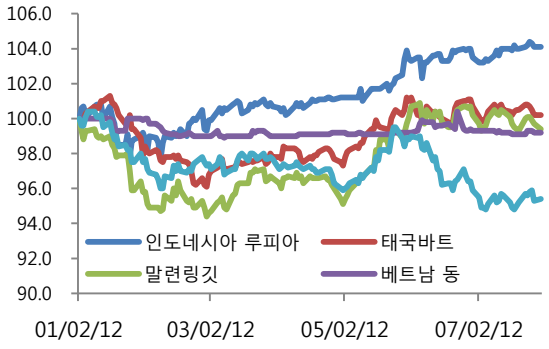
[1] 인도네시아 중산층은 5천만 ~ 1.5억 명으로 추정 (World Bank)

○ **루피아 약세는 무역수지 감소 및 자본수지 적자 확대, 정부정책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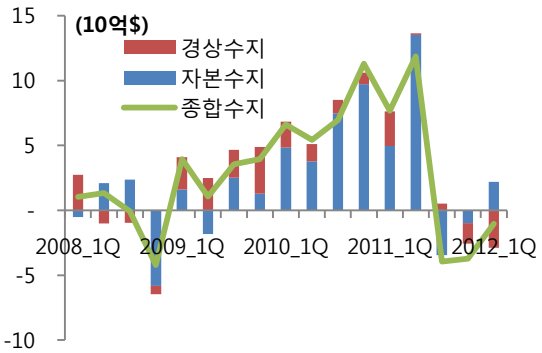
- 무역수지, '11년 상반기 243억 달러 흑자에서 하반기에는 110억 달러,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34억 달러로 흑자규모가 대폭 감소. 특히 5월 이후로는 적자로 전환
- 자본수지는 2009년 하반기 이후 흑자기조를 유지하였으나 지난해 3/4분기 이후 외국인 자금유출 확대 및 유입부진으로 적자로 돌아섰다가 금년 1/4분기 다시 흑자 전환
- 印尼 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3~4%로 안정세를 보이자 정책금리를 3차례에 걸쳐 1%p인하(7.75% → 6.75%)한 것도 통화약세 요인으로 작용
- 정부의 유가보조금 축소 계획이 강한 반대여론에 부딪쳐 연기되자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자금 유출 초래

○ **최근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한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주력 수출품인 자원 및 농산물 수출이 줄어든 가운데 자본재 및 내구 소비재 등의 수입은 지속에서 비롯**

<동남아 환율변화('12.1=100)>



<국제 수지 추이>



□ **印尼 정부는 루피아 가치 하락이 금융시장 및 실물시장의 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중**

○ 印尼 정부는 지난 5월 세계은행으로부터 20억 달러 융자를 승인 받고 아시아 개발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 (JBIC)에도 35억 달러의 융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

○ 6월 이후 루피아 환율 상승세 둔화되는 한편 주가도 상승세로 전환

2. 중단기적으로 성장률 둔화되나 장기적 회복 전망

□ 印尼 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으로 중단기적으로 둔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견조한 성장세 전망

○ IMF는 금년도에는 글로벌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6.1% 성장률을 보인 뒤 내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5년에는 7% 성장 전망('12. 7월)

- IMF는 지난 4월 금년도 印尼 경제성장률을 당초 6.5%에서 6.1%로 하향 수정했으나 견조한 내수증가로 급격한 경제위축은 없을 것으로 전망

○ World Bank는 印尼의 시나리오별 경제성장 전망에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심화될 경우 금년보다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

- 국제금융시장의 위축으로 印尼 자본시장의 외국인 자금유출 및 중국, 미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금년도 5.8% 성장에서 내년에는 4.7%로 하락할 전망(Scenario 2)
- 세계경제의 침체가 신흥개도국까지 확산되어 국내 투자 및 소비심리가 급격히 하락하고 전반적인 상품가격 하락 등으로 이어질 경우 印尼 경제성장률은 2013년에 3.8%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(Scenario 3)

<시나리오별 印尼 경제성장 전망>

		2011	Scenario1 (기본) 세계경제 침체지속		Scenario2 2009년과 유사한 상황		Scenario3 세계경제 침체심화	
			2012	2013	2012	2013	2012	2013
GDP성장률		6.5	6.0	6.4	5.8	4.7	5.7	3.8
전망조건	투자/GDP(%)	24.4	25.3	26.1	25.1	25.1	25.0	24.1
	주요 교역국 GDP성장률(%)	3.6	3.3	3.7	2.3	0.1	1.9	-1.8
	교역조건 증가율(%)	10.2	2.0	9.0	0.0	-15.0	0.0	-30.0

* 자료: World Bank, '12.7

○ 印尼 경제는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른 내수위축 및 투자부진이 불가피하여 향후 2~3년은 5%내외의 성장률에 머물고 2015년 이후에는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과 함께 내수증가로 예년 수준인 6%대 회복 전망

3. 印尼 사업에 내재된 리스크 요인

□ (정치 리스크) 연립내각 운영에 의한 정책 추진력 약화 및 차기 정권 향방 불투명으로 향후 경제정책 방향 예측 어려움

○ 현 집권당인 민주당은 의회 의석 26.4%를 차지한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, 정치적 기반이 약해 골까르당, 투쟁민주당(PDI-P) 등과 연립내각 을 구성함으로써 주요 정책 사안마다 정치적 대결로 정치불안 반복

○ 정치, 경제개혁 실적 부진 및 일부 부패사건에 현 집권세력 연루 등 유도요노 정부의 국민 신뢰도 하락으로 차기 정권 재창출 불투명

- 민주당이 지지기반을 상실할 경우 2014년 선거에서는 현재 제2당인 전통 보수당 골까르당이 부상할 가능성 높음(Jakarta Post, '12. 4.13)

○ 보수성향이 강한 골까르당이 집권하면 로칼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 및 Krakatau Steel과의 합작경영이 현재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 있음

□ (비효율적 행정관행) 관료주의, 정경유착, 부정부패 관행 존속으로 사업 외 비용 발생

○ 유도요노 대통령의 강력한 부패척결 노력 불구 관료주의, 부정부패 및 연고자본주의(Crony capitalism)[2] 관행 상존

○ 각종 인허가 획득 및 행정절차 수행 시 비공식 비용 발생 (자바지역 총생산비의 4.2%)

□ (외환시장 불안) 외채구조는 비교적 양호하나 경제체질 약화 및 무역구조의 취약으로 국내외 환경 변화 시 외환시장 불안 증가하여 환율급등 초래

○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무역수지는 전년비 30.8% 감소한 가운데, 환율은 16.3% 폭등

○ GDP 대비 총외채는 점차 감소하여 23.0%(50% 이하이면 안정),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도 7.7개월(3개월이면 안정)로 비교적 양호하나 수출액 대비 총 외채 비중은 주변국 중 가장 높은 96.9% 차지

[2] 인니에서 정계, 재계, 군벌간에 형성된 유착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권이 개입된 사업의 경우 후견인이 막후에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본주의 구조 형태

○ 광물자원 수출비중이 40%에 이르고 있어 최근 국내 자원보호를 위한 광물자원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자원개발의 부진 및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음

❖ 印尼 정부는 65개 광물자원에 대해 20%의 수출관세 부과 시행령 발표(' 12. 5) : 철광석 등 34종의 광석, 21개 종류의 금속광물, 10종의 비금속 광물 (석탄은 수출부과 대상에서 제외)

< 외채구조 추이 및 비교 >

	인도네시아					태국	말련	베트남
	2007	2008	2009	2010	2011	2011	2011	2011
총외채/GDP(%)	31.0	28.9	30.2	25.3	23.0	20.5	30.1	38.7
외환보유액/월평균 수입액(개월)	7.7	5.1	8.6	8.7	7.7	8.0	8.8	1.6
총외채/총수출(%)	113.4	105.7	136.1	113.3	96.9	26.7	36.9	50.0

자료 : World Bank ' 12. 7

□ (인플레이션) 향후 국제 농산물 및 유가 급등, 정부의 유류보조금 인하 강행 등으로 인플레이션 재현 우려

○ 금년 상반기 들어서 4%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는 향후 국내외 물가 상승압력이 현실화될 경우 인플레이션 재현 가능성

- 2005년 유류보조금 인하 시 印尼 소비자물가 6.2% ('04) → 10.5% ('05) → 13.1%('06)
- 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세계 농산물 가격이 금년 6월 한달 동안 30 ~ 50% 상승하여 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 우려
- 印尼 정부 숙원정책 중의 하나인 유류보조금 축소안을 강행할 경우 유가인상으로 인한 연쇄적인 물가상승 가능성

□ (산업 인프라 취약) 취약한 정부재정과 투자 부진으로 인프라가 빈약하여 운송비 등 물류 비용 증가

○ 정부의 취약한 재정으로 인프라 투자는 GDP의 1.7%에 불과 (적정인프라 투자규모: GDP의 5~10%, Standard Chartered은행)

- 印尼 정부는 민관 합작투자 또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인프라 건설에 노력하고 있으나 인프라 투자시 외국인 건설법인 지분 67% 제한 및 소유권 취득 불가 등으로 투자실적 미흡

○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순위('12)는 76위로 아시아 경쟁국 중 최하위 (말레이지아 26위, 태국 42위)

- 전기 보급률 60% (자카르타 지역은 95%, 피크시기에는 순회정전 실시)
- 교통인프라 저조하여 운송물류 비용이 말련, 태국 대비 60% 이상 높은 수준 (철도 복선화율 10%, 도로 포장율 61%, 고속도로 비율 0.2%)

□ (노사분규 및 임금상승) 노조 친화적 노동법과 지방분권화 이후 포플리즘 정책으로 임금이 오르고 노동시장이 경직되면서 인건비 상승

○ 노동생산성이 낮은 가운데 노조 친화적 노동법 규정으로 채용, 해고, 노동시간 등 고용부문 경직성이 매우 높음

- 노동생산성 73위, 노동생산성 증가율 51위(79개국 중, WB 2011)
- 인도네시아의 고용경직성 세계 100위(World Economic Forum: 베트남 50위, 인도 77위, 중국 78위

<아시아 주요국의 임금수준>

(단위: 달러, 월급여)

도시	일반 노동자	중견기술자	중간관리자(과장)	법정최저임금
자카르타	209	414	995	167
하노이	111	297	713	95
방콕	286	641	1565	136
북경	538	815	1460	199

자료: JETRO 조사(2012. 4 기준)

○ 지방 자치제 실시(2001) 이후 최저임금 결정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전되면서 포플리즘 정책에 의해 임금이 급상승

- 2012. 1월 서부 자바 주정부는 지역연합노조가 물가상승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돌입하자 협상 2달 만에 15% 인상안에 합의 (146달러→167달러)
- 지방선거를 앞둔 주지사는 재선을 위해 중앙정부 임금위원회의 인상안을 웃도는 최저 임금 인상안 결정

○ 자카르타의 법정 최저 임금(167달러/월)은 주변국보다 월등히 높은 가운데 북경 수준에 근접. 중간 직급의 임금은 높지는 않으나 최근 이들 직급에 대한 수요 증가로 상승 추세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